



원동면의 유파매미

김민경 

원동면의 유파매미 김민경 

원동면 시화.zip



양귀비의 유파메리

김민갑



☀️ 목차

발간사	06			
2025년 시화교실 작품	10		2024년 시화교실 작품	50
· 엄마는 나 (정미자)	· 나의 마음자리 (김기연)		· 일출 (하경순)	· 원동면 마을이야기
· 가을 바람 (박귀약)	· 자화상 (정미자)		· 어머님 생각 (이미순)	· 원동마을
· 나의 의자 (이숙희)	· 목련 (정미자)		· 원동매화축제 (하경순)	· 함포마을
· 물고기 (김기연)	· 마음길 찾아 (정미자)		· 화제리 우리 동네 (박귀약)	· 당곡마을
· 기다림 (박화순)	· 잘 살아내는 것 (정미자)		· 아침 운동 (김종희)	· 신곡마을
· 공짜 (고필숙)	· 보챤 나의 동력 (정미자)		· 배내골 (하경순)	· 중리마을
· 조용한 자리 (김원희)	· 길 (이숙희)		· 큰 소나무 (조용현)	· 선장마을
· 살아보면 안다 (최인숙)	· 봄이 오면 나는 (이숙희)		· 꽃밭 (황연조)	· 내포마을
· 내 마음의 진심 (박화순)	· 살고 싶은 곳 (최인숙)		· 나의 집 (김기연)	· 영포마을
· 바람이 분다 (고필숙)	· 마음 공부 (이정화)		· 그리움 (박화순)	· 어영마을
· 유토피아 꿈꾸는 세상 (고필숙)	· 오월 (이정화)			· 신주마을
· 회상 (이숙희)	· 행복 (류미자)			· 범서마을
· 허수아비 (고필숙)	· 내 인생 겨울의 문턱에서 (이정화)			· 외화마을
· 어느 봄날 오후 (고필숙)	· 전원생활 (이정화)			· 내화마을
· 강물 (박귀약)	· 겨울 (이정화)			· 지나마을
· 나 (정미자)	· 빗방울 (김원희)			· 명언마을
· 기도 (정미자)	· 우체통 (김원희)			· 토교마을
· 봄이 오면 나는 (김기연)	· 내 마음 반성문 (이정화)			· 대리마을
· 시계 (김기연)	· 시집살이 (이정화)			· 선리마을
				· 장선마을
				· 태봉마을
				· 늘밭마을

「원동의 하루를 담다」에 담긴 마음을 응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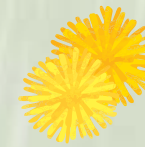
하루의 온도, 계절의 빛깔,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시와 그림으로 엮은 「원동의 하루를 담다」가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시화교실은 단순한 문화강좌가 아니라, 주민이 삶을 돌아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마을의 기록실'이었습니다. 시 한 줄, 그림 한 점에는 원동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오래된 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 속에서 주민들은 자신만의 감성과 표현을 발견했고, 그것이 모여 원동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지 결과물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한 시간의 증거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주민분들,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웃고 응원해주신 감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양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의 장을 넓히고, 마을 곳곳의 이야기가 이어지도록 든든히 곁을 지키겠습니다.

양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손재현



2025년
시화교실 작품

엄마는 나

정미자

넷가에 빨래하는 엄마 옆에
꼬맹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다
어디든 엄마만 옆에 있으면
부러울 게 없던 어린 시절.

조금 자라 눈치 살필 때 즘,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 받으며
인.의.예.지 익힌다고
꽃사과 같은 십대시절 지나가고

성장하여 뭔가 알 때쯤
등 뒤에서 눈물 훔치는 엄마 두고
내 사랑 찾아 떠난 세상으로 옮겨갔네

그속에서 한 시절 신나게 춤추다보니
훌쩍 세월 흘러 어느새 머리엔
서리가 내리고
어느날 가만히 돌아보니

아- 나의 엄마가 지금 여기 있네

가을 바람

박귀악

가을 바람에 낙엽은 떨어지고
떨어진 낙엽에는 이슬이 맺혀
바람결에 둥굴고 있는 낙엽
추운 겨울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외로움과 쓸쓸함이어

나의 의자

이숙희

흔들리는 나의 의자에 길들여 있다
때론 재밌고
가끔씩은 어지럽고

고정된 안락한 의자보단
흔들거리는 내 의자가 더더욱 편안하다
세상은 지·수·화·풍·변화무쌍

흔들거리는 내 맘 리듬을 타며
고이 고이 살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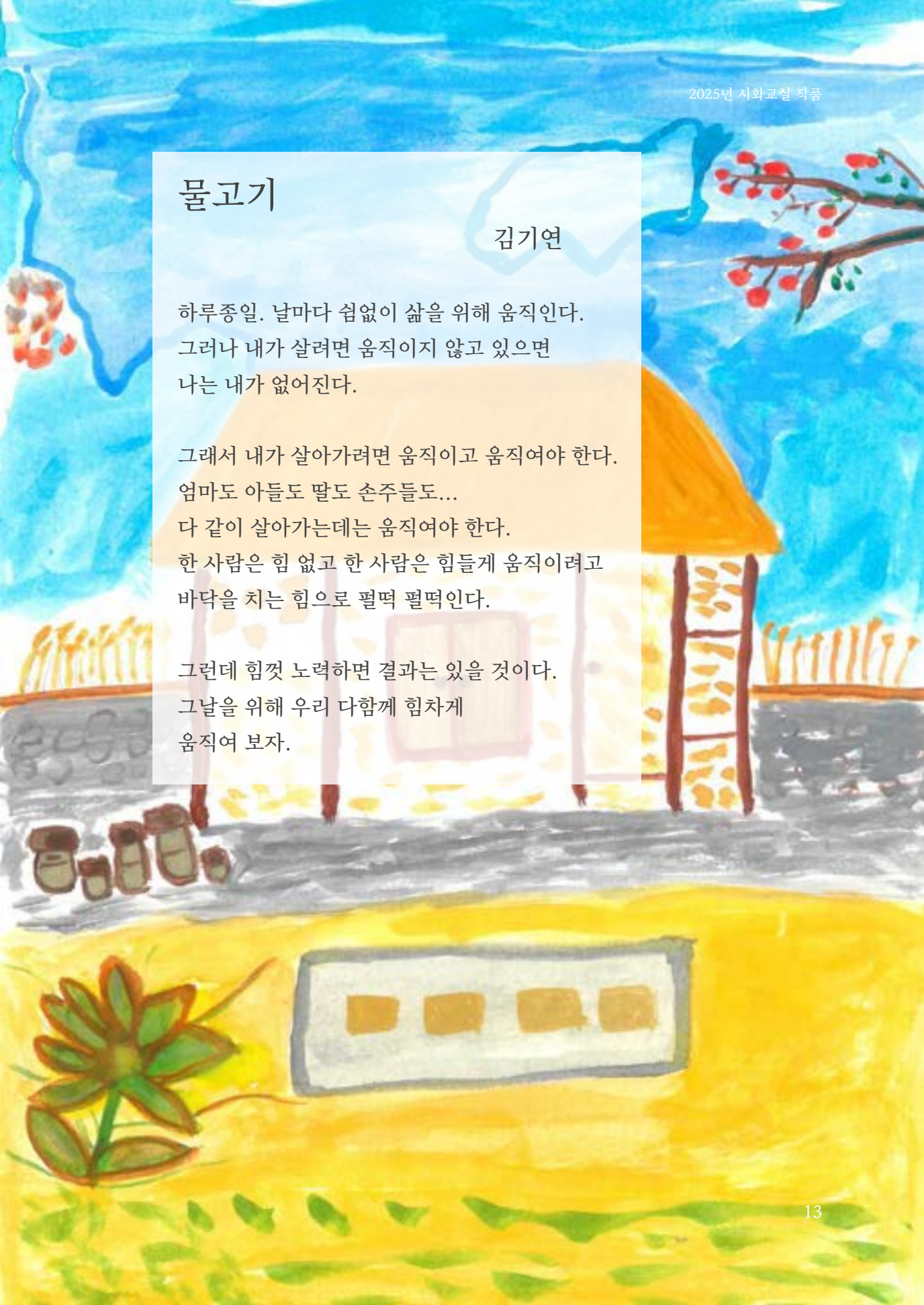
물고기

김기연

하루종일. 날마다 쉽없이 삶을 위해 움직인다.
그러나 내가 살려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나는 내가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려면 움직이고 움직여야 한다.
엄마도 아들도 딸도 손주들도...
다 같이 살아가는데는 움직여야 한다.
한 사람은 힘 없고 한 사람은 힘들게 움직이려고
바닥을 치는 힘으로 펄떡 펄떡인다.

그런데 힘껏 노력하면 결과는 있을 것이다.
그날을 위해 우리 다함께 힘차게
움직여 보자.



기다림

박화순

오늘은 사무치는 그리움.
약속도 안 했는데 기다려지는
마음은 왜 일까요?

무작정 기다림은
수천가지 생각으로 나를
달래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지금도 기다립니다.

가녀린 나의 심장을
차분히 달래 봅니다!

하

하

공짜

고필숙

숨 쉬는 것도 공짜요
움직이는 것도 공짜다

웃는 것도 공짜요
우는 것도 공짜요

그러므로 마음껏 누려라
이 세상이 공짜로 주는 모든 것들을
뻔뻔하게 받아도 탓하는 이 없으니

오로지...
아침에 눈만 뜨면 된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조용한 자리

김원희

하루의 끝에 앉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내려앉는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이제 말없이 공기가 메운다
그 공기마저 조심스레 다독이며
나는 오늘도 어머니의 이마를 식힌다

눈을 감으면
짧은 날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돌아오고
눈을 뜨면
지금의 숨이 더 또렷하게 들린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시간의 무게를
나는 조용히 안고,
그 무게 속에서도
하루를 다시 세운다.
그저 이렇게,
조용히,
살아 있다는 일 하나로
내 마음은 조금씩 빛이 난다.



살아보면 안다

최인숙

살아보면 안다 지금 삶이 가장 행복이란 걸
배고파보면 안다 밥이 최고라는 걸
목 말라보면 안다 물이 생명이란 걸
놀아보면 안다 일터에 나갈 수 있음에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최고라는 것을
잃은 뒤에 안다 잃은 것이 참 소중한다는 것을
이별해 보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것을
지나보면 안다 어려움이 고통인 걸
불행해 보면 안다 적은 게 행복이란 걸
없어보면 안다 지금의 소유가 행복이란 걸



내 마음의 진심

박화순

오늘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침에 눈을 떠 감사하고 행복한 감성으로 시작한다.
슬픔도. 외로움도. 쓸쓸함도.

모두 나의 마음에서의 표현이다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분출되는 표현
나도 모르게 분출되는 표현

최선을 다하는 나의 자제력으로
행복을 만끽하고 즐거움을 추구한다!!!



내 마음의 비가 내리면

박화순

많은 시간들 속에
항상 함께 했던 소중한 사람.
말없이 소리 없이 조용히 어느날
내 곁을 떠났습니다.
지난 일 상기하면
오늘도 내 마음에 비가 내립니다.

예쁜 사랑 예쁜 추억
아름다운 젊음을
함께한 하나의 소중한
그대를 떠올릴 때면
지금도 내 마음속에
비가 내립니다.



유토피아 - 꿈꾸는 세상

고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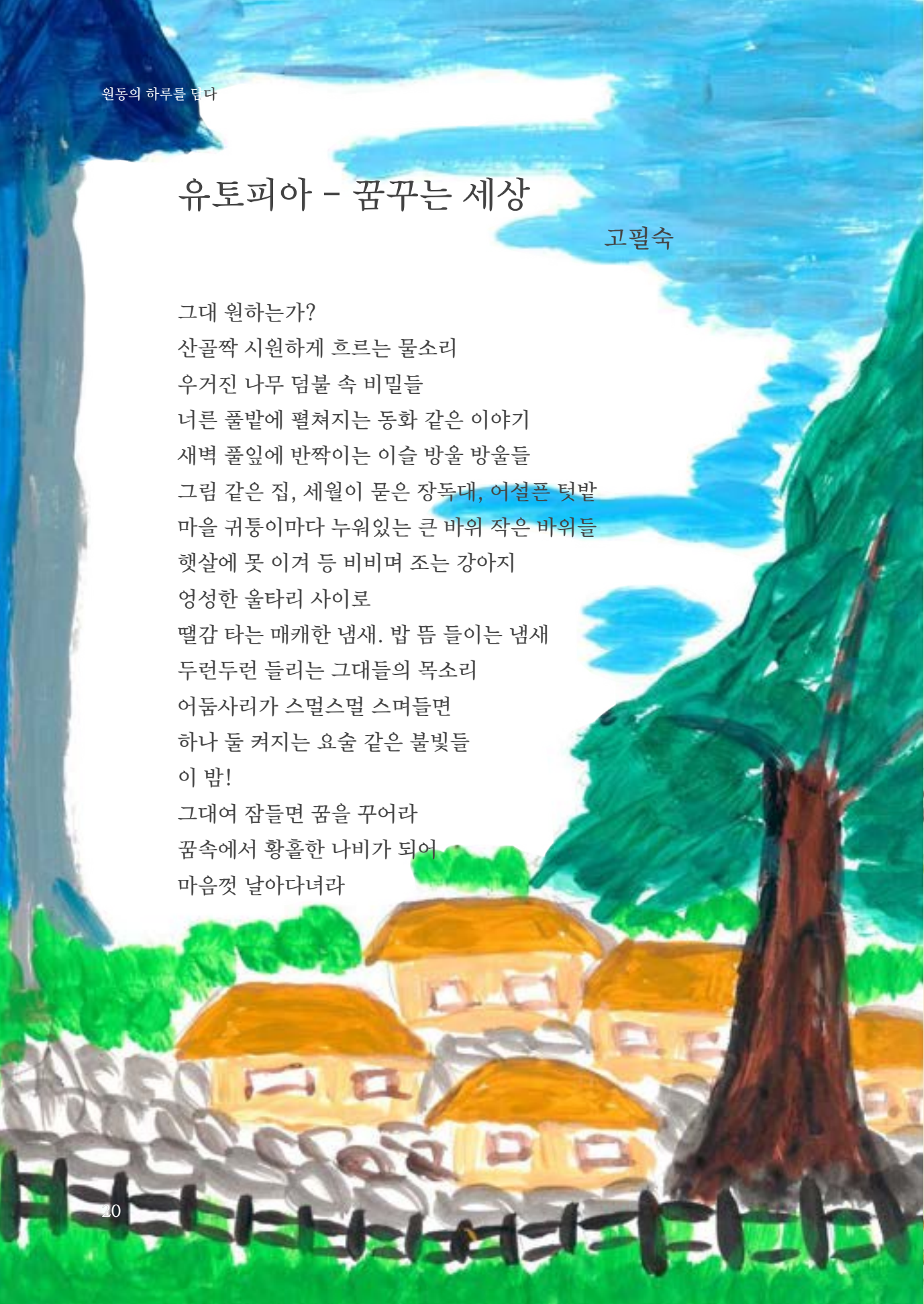
그대 원하는가?
 산골짜기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
 우거진 나무 덩굴 속 비밀들
 너른 풀밭에 펼쳐지는 동화 같은 이야기
 새벽 풀잎에 반짝이는 이슬 방울 방울들
 그림 같은 집, 세월이 묻은 장독대, 어설픈 텃밭
 마을 귀퉁이마다 누워있는 큰 바위 작은 바위들
 햇살에 못 이겨 등 비비며 조는 강아지
 엉성한 울타리 사이로
 땀감 타는 매캐한 냄새. 밥 뜸 들이는 냄새
 두런두런 들리는 그대들의 목소리
 어둠사리가 스멀스멀 스며들면
 하나 둘 켜지는 요술 같은 불빛들
 이 밤!
 그대여 잠들면 꿈을 꾸어라
 꿈속에서 황홀한 나비가 되어
 마음껏 날아다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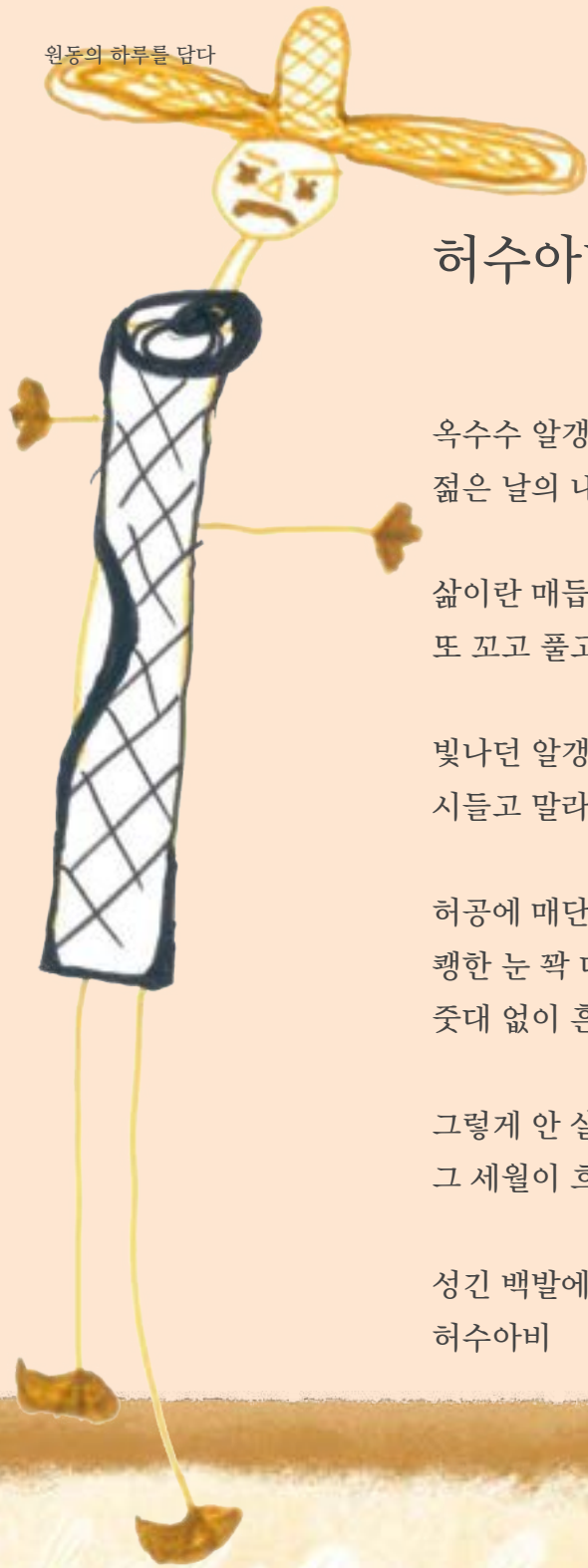
회상

이숙희

요즘들어 나를 찬찬히 볼 여유가 생겼다
 잘 헨것도 그다지 잘못된 것도 없구나
 그냥 자연이 주는데로 내 마음을 맡기련다

오직 남은시간 마음 다듬는 것 밖엔 할 일이 없네
 막연히 예쁨을 상상하여 뿌듯하고 가슴 벅차다
 경계를 두지 않고 부드러움으로 어루만지며
 한탄보다 감탄으로 오직 삶을 누리리라
 계속 계속 다짐하고 다짐해 본다.





허수아비

고필숙

옥수수 알갱이처럼 가지런히 윤이 나던
젊은 날의 내 육신

삶이란 매듭을 묶고 풀고
또 꼬고 풀고 하다보니

빛나던 알갱이들은 하나 둘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

허공에 매단 허수아비처럼
팽한 눈 짝 다문 입
줏대 없이 흔들리는 몸뚱아리

그렇게 안 살거라 움켜쥐고 보듬었지만
그 세월이 흐른 후...

성긴 백발에 빈 꺾데기만 덜렁거리는
허수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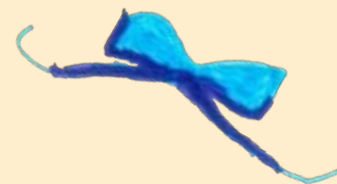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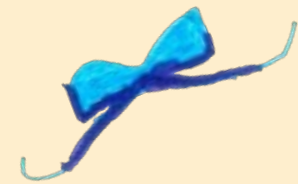


어느 봄날 오후

고필숙

갑작이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졌다.
젊어서 삶에 부대끼다보니 마음을 내지 못했다.
백발이 성성한 지금 뜬금없이 왜 이럴까!
마음 한켠에 꼭꼭 숨어 있었나 보다.

이 봄!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해 보는거야...



강물

박귀악

강물아 너는 어찌면 그리도 도도하게 흐르고 있느냐.
 강물아 너는 참 행복하겠구나!
 너의 물속에는 고기들로 조개들로
 그리고 맘도 생물체도 너의 넉넉함 속에 살고 있으니

비가 오면 빗방울이 생기고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배로 다니고
 그렇게 나는 몇백년
 아니 몇천번도 흐르고 있겠지!

오늘 아침에도 너를 보니
 너무 평화롭게 보이는구나!



나

정미자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
 잔잔한 미소 속에 작은 파문

나의 모습의 아쉬움
 허공으로 훨훨 날려
 세월의 나이테가 생겨도
 밝은 미소면 사랑스러운 그녀
 그리고 나



기도

정미자

매일 매일이 옹골찬든 나에게
웃음과 사랑을 전해준
나의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작은 몸짓과 밝은 미소로
내마음에 안온함을 준
꼬물이 내 삼세에게 감사합니다

자주 안부를 물어주고 살피주는 아들
건강한 생각과 집안에 활력을 주는
나의 데칼코마니 같은 며느리에게
감사합니다

단조로운 생활이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노력해준 나의 삶의 동반자들에게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봄이 오면 나는

김기연

집안팍의 대청소와 텃밭 정리를 하고
먹거리는 사먹지 말고 자급자족을 하련다.
생각만 하다 실천에 옮기지 못하니 그냥 지나간
세월이 항상 아쉽다.

올봄엔 나의 팔순 행사가 있어 아이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서 식구들에게 도움되게 노력하자
그리고 가족 여행을 할려면 미리부터 준비해서
남편과 갈려고 약속했던 곳을
올해 꼭 실천에 옮기자



시계

김기연

그대의 나이 80이라고
 시계가 말한다.
 알고 있어 내가 대답한다.
 그대는 80살이 되었어.
 시계가 또한번 말한다.
 알고 있다니까.
 다시 대답한다.

시계가 나에게 묻는다.
 그대의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대답한다.
 월을 되면 시낭송 수업가고
 화을은 장구수업 가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잠시후
 나의 대답을 수정한다
 아프지 않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사는 일이라고.

시계는 즐겁게 한판 웃었다.
 그럴테지 그럴테지 그대는 속물 중에 속물이니
 그쯤이 정답일 테지 시계는 쉬지 않고
 저만치 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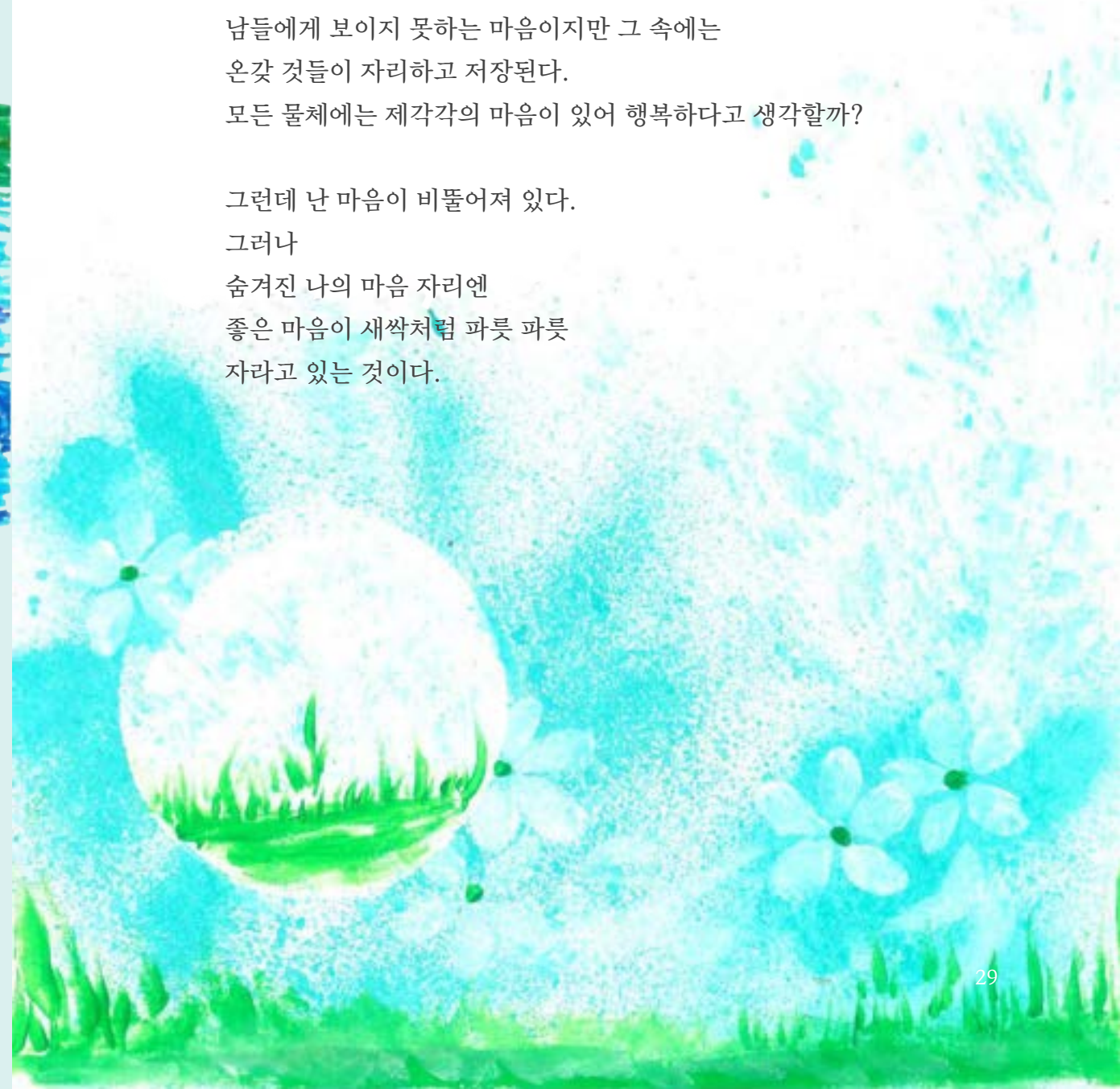


나의 마음자리

김기연

볼 수도 없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러나 많은 것들을 저장할 수는 있는
 그렇지만 마음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질 못한다.
 남들에게 보이지 못하는 마음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것들이 자리하고 저장된다.
 모든 물체에는 제각각의 마음이 있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그런데 난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
 그러나
 숨겨진 나의 마음 자리엔
 좋은 마음이 새싹처럼 파릇 파릇
 자라고 있는 것이다.



자화상

정미자

천둥 번개가 친다
주위엔 고요만이 있다
떨난 도깨비가 따로없네

온화하고 모든 것을 포용해
줄 것 같다가도
뼈죽 내미는 미운 심보

모든 시절인 연속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덕분이란 생각에
뼈죽 나온 심보가 쏘옥 들어간다

익지 않은 청보리 같은 나의
매일을 익어감으로 채우고
반복과 성숙은 마중물이 되어
터놓은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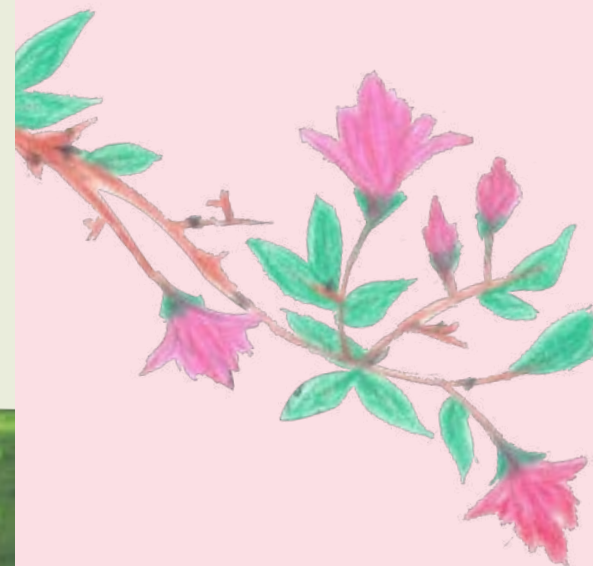
목련

정미자

이른 봄 정원에 하늘꽃이 피었다.
“음 좋아.” 눈을 감아본다
단아한 자태 수줍은 꽃망을
꽃잎의 부드러움들이
내 눈속에서 춤을 춘다

나비가 되었다가
성인의 공양물이 되었다가
흐드러져 내리는 꽃비가 되었다가

삼라만상의 도움으로
자태를 드러내는 너는
아침의 고요와 동무하며
천상을 선물하네



마음길 찾아

정미자

호젓한 바닷길 따라 걷고 싶다면
수평선을 바라보며
조약돌의 눈부심에 멍 때리며...

어린시절 엄마와 같이 지낸
추억이 있고
바닷가에서 본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고 싶어
섬마음을 향하는 내 마음.

그러치만 내 다정한 이웃들과
물따라 길따라 함께 있어
안온함을 느끼며...

그 눈빛들에 그리움 실고
마음따라 길따라 마음길 찾아



잘 살아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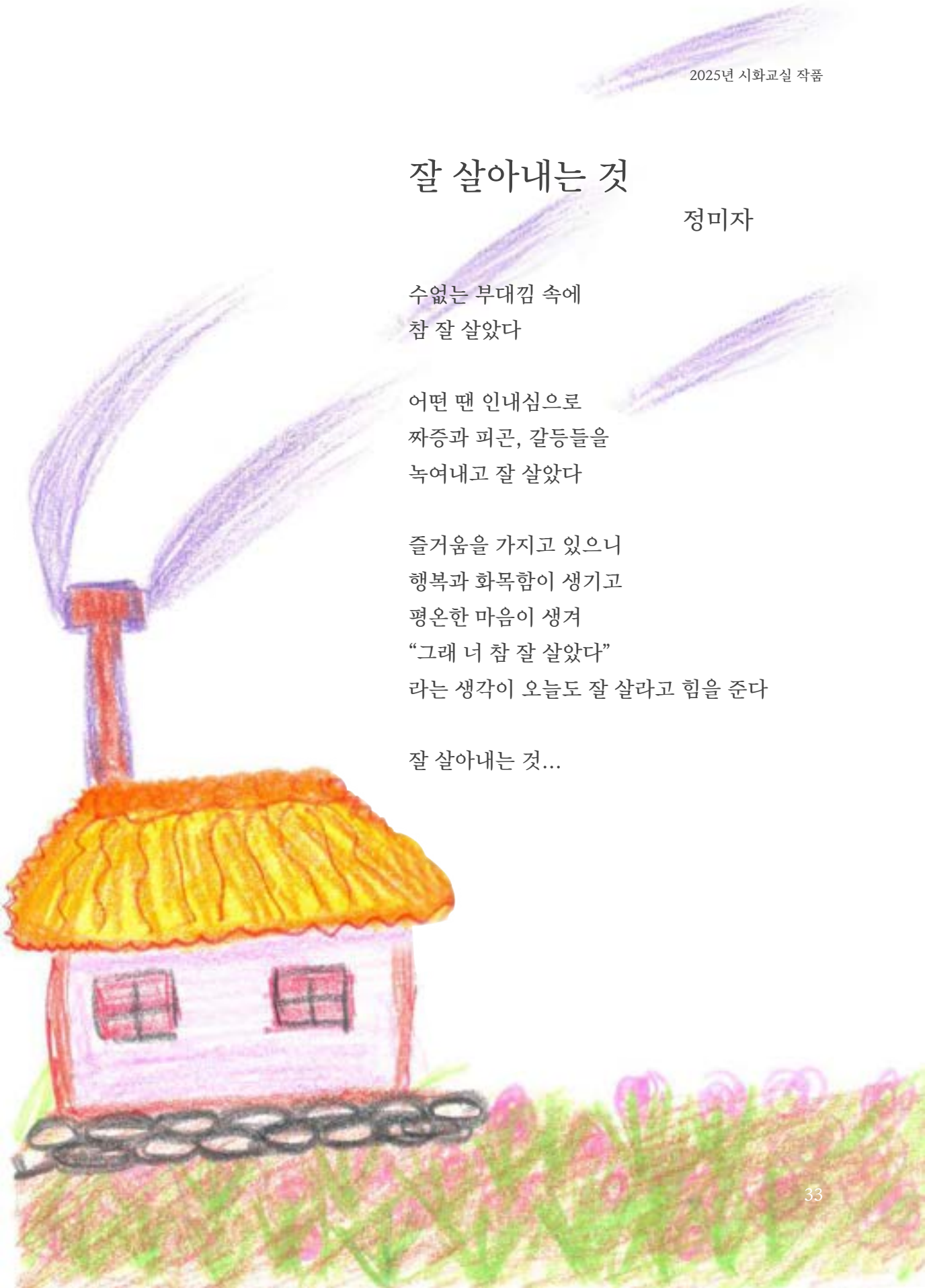
정미자

수없는 부대낌 속에
참 잘 살았다

어떤 땀 인내심으로
짜증과 피곤, 갈등들을
녹여내고 잘 살았다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니
행복과 화목함이 생기고
평온한 마음이 생겨
“그래 너 참 잘 살았다”
라는 생각이 오늘도 잘 살라고 힘을 준다

잘 살아내는 것...



보챔은 나의 동력

정미자

지나고 다가올 나의 날들
어린 시절 거쳐 이순간까지
살아오며 바람이 벗이 됐다

꽃밭에 가면 예쁜 꽃이
보고 싶어 보채고
텃밭에 가면 알알이 영그는
열매와 풋성귀에게 보채고

인연들에겐 주고 받고
사랑하고 싶어 보채고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즐거움 행복 호기심 챙기려
온몸으로 보채고

온몸 온몸으로 오늘도 내일도
즐거운 보채기를 희망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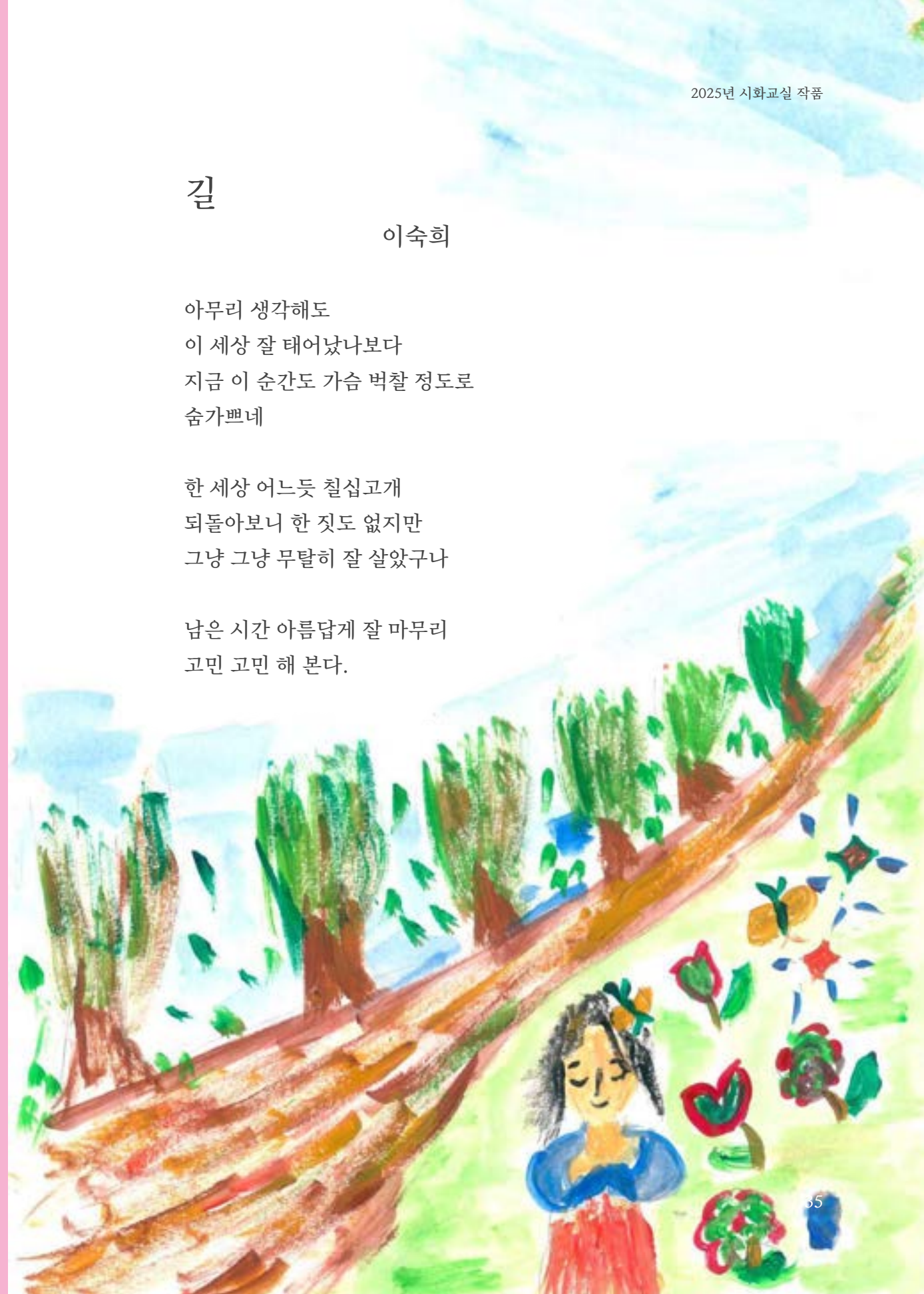
길

이숙희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 잘 태어났나보다
지금 이 순간도 가슴 벅찰 정도로
숨가쁘네

한 세상 어느듯 칠십고개
되돌아보니 한 짓도 없지만
그냥 그냥 무탈히 잘 살았구나

남은 시간 아름답게 잘 마무리
고민 고민 해 본다.



봄이 오면 나는...

이숙희

봄바람 맞으며 마냥 걷고 싶어진다
높은 산 아닌 평온한 임도
햇살 안고 음악 들으며 가고 싶다

새순의 향기도 먹고 싶고
펜촉같은 연초록 새싹도 보고싶다

예쁜 구름 요술쟁이 하얀구름도 보고 싶구나

봄! 봄! 봄!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고 설렌다
숨겨둔 연인 만나듯...



살고 싶은 곳

최인숙

출발점은 4곳에서
산골에서
어촌에서
농촌에서
도심에서
각자의 마음속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최종적으로 한 곳으로 정해진다
도심에서 살자



마 음 공 부

이정화

일주일에 세번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일요일엔 차량통행이 많지 않아 한 시간.
 수요일엔 차량통행이 많아 한 시간 반.
 토요일엔 한 시간 소요되는 도로를 달린다.
 최고 속도 140k. 최저 속도 10k.
 이 차선 도로 위에서 마음 공부를 한다.
 어느 날은
 누구든지 방향지시등만 켜면 끼워주리라
 어떤 날은 제발 끼어 들지 마라
 일차선으로 가야 빨리 갈 수 있으려나
 이차선으로 가야 빨리 갈 수 있으려나
 차선을 바꿨는데 아뿔싸 정체가 되네
 그냥 그대로 갈 께. 차선은 바꿔가지고.
 애타는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시간이 부족할 때. 마음은 안달 복달
 여유로우면 이래도 저래도 느긋할 텐데
 모두 내려놓을 이 나이에 시간 여유 챙기고
 마음 공부 잘하여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안전 운전 해야겠다.

오 월

이정화

연두빛 사월이 가면
 멀리 있던 앞산이 다가오는 오월
 마당엔 환희의 봄들이 다투어
 쏘옥 쏘옥
 이슬 머금은 꽃망울엔
 아침 햇살이 비추이면 눈부신 하루
 오월
 계절의 여왕인 오월엔 멋진 나날들이
 펼쳐 질 것 같다
 향기로운 꽃들에 내 마음도 두둥실
 아름다운 오월 행복합니다
 천지의 기운마저도 나를 응원하는
 오월.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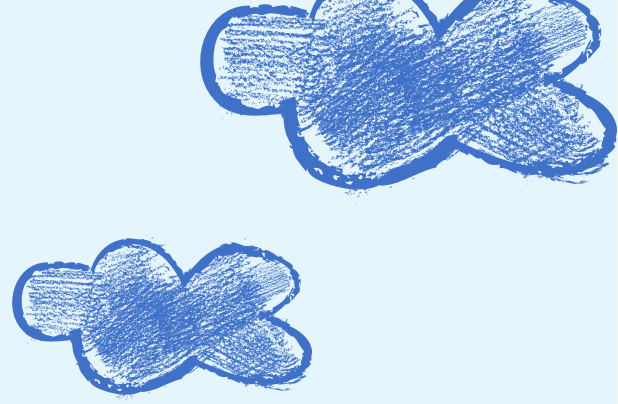


원동의 하루를 담다

행복

류미자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행복과
 즐거움을 모른다
 난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 걸을 수
 있다는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다
 남에게 나눔도 할 수 있고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있어
 늘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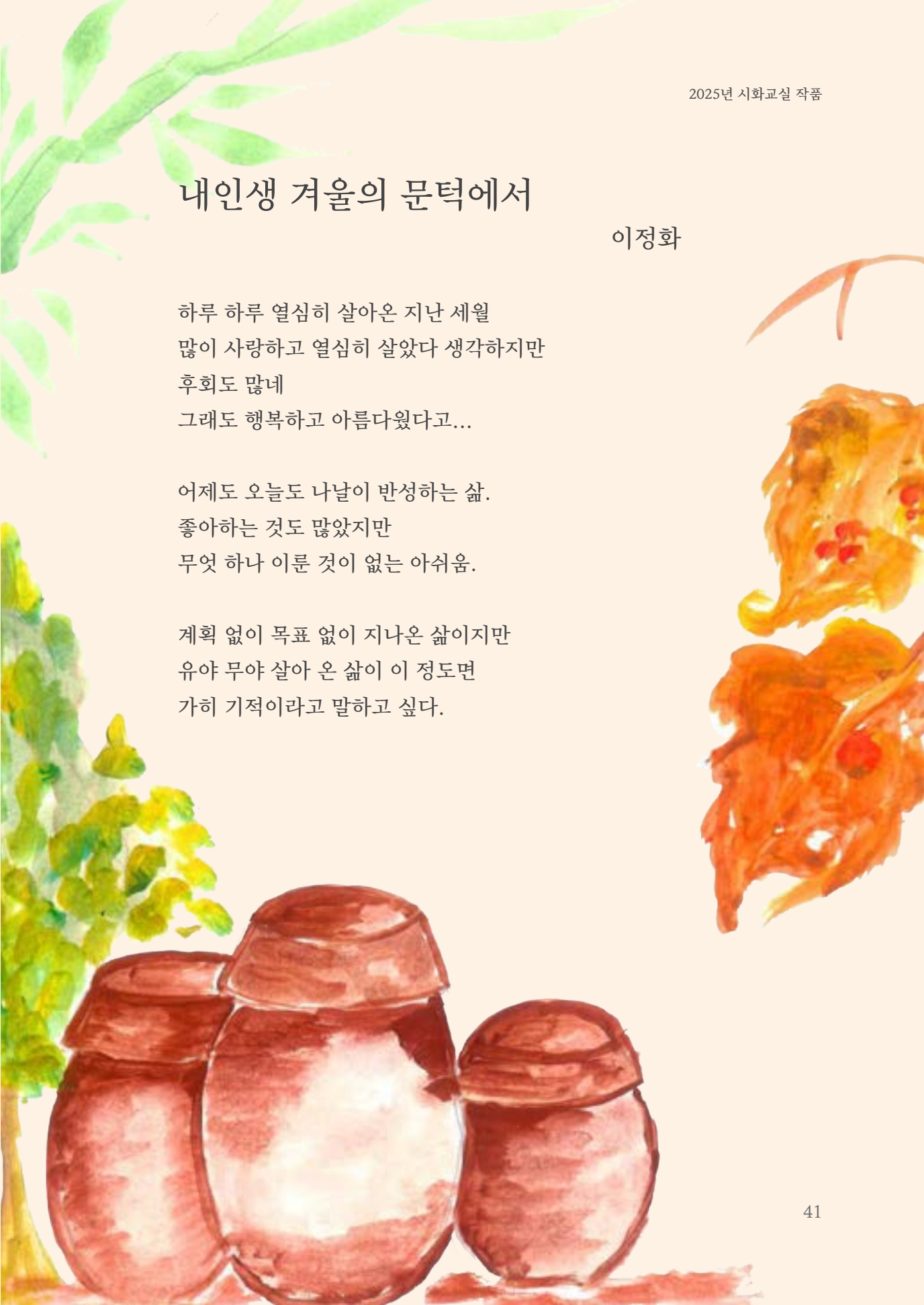
내인생 겨울의 문턱에서

이정화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지난 세월
 많이 사랑하고 열심히 살았다 생각하지만
 후회도 많네
 그래도 행복하고 아름다웠다고...

어제도 오늘도 나날이 반성하는 삶.
 좋아하는 것도 많았지만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는 아쉬움.

계획 없이 목표 없이 지나온 삶이지만
 유야 무야 살아 온 삶이 이 정도면
 가히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전원생활

이정화

내가 살고 있는 배내골은
 산이 높고 골이 깊다
 소중한 하루를 환호하며 맞는다.
 야 호!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기 전
 어스름한 새벽은 참 좋다
 우주의 기운에 맞춰 꽃들이 자라고
 신록의 푸르름 속에 나무들과
 내가 성장하네.
 먼 산엔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내 마음엔 감사함이 일어난다.
 새들의 지저귀는 감미로운 음악
 아! 행복하다
 전원생활의 필수. 풀 뽑기
 텃밭의 풀 뽑기는 나의 또다른 즐거움
 하 하 하 웃는다
 아니 호 호 호 웃어야지.

거울

이정화

어느날 거울 속에서 엄마를 보았다.
 아뿔사!
 그것은 엄마가 아니고 바로 나였다.
 거칠어진 손, 주름진 얼굴.
 거울이 말해 주었다. 그대는 할머니.
 아.. 나는 할머니였었네.
 거울이 내게 묻는다.
 그대는 어떤 삶을 살아 왔는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지.

하지만 목표와 계획없이 살아온 세월
 반성이 되는구나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냥 살아야지.
 거울아, 더 많이 사랑하고 베풀려고
 노력해야겠지. 잘 하려고
 시도해 보는 마음.
 그 마음 잘 챙기며 살련다.

빗방울

김원희

창가에 떨어지는
작은 빗방울 소리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조용히 마음을 적신다

쓸쓸한 멜로디 속에
그리움이 스며들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아
너의 이름을 흥얼거린다

사랑 한 덩어리



우체통

김원희

빨간 우체통 앞에 서서
조심스레 마음 한 장 접어 넣는다
기다림은 늘 길고
답장은 더디게 오지
바람에 실려 가기를 바라지만
그대에 손끝엔 닿지 못하고
낱은 우체통 속에서만
조용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내 마음 반성문

이정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한동안 이 말을 참 좋아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알아보았자
 별 수도 없는 걸 이라는 결론에 봉착
 지금도 알고 있는 게 없다는 말이다.

나이의 나이테가 곱어지니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마음이
 조금은 일어 나는 것 같다.
 아. 착각 속에서 저지른 잘못도 알았고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척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척
 아~ 부끄럽다.
 내 인생 겨울의 문턱에서
 무조건 사랑하며 따뜻한 겨울을
 맞이 해야 겠다.

시집 살이

이정화

시집와서 울보가 되어버린 나.
 저녁마다 울었다. 왜 우냐고 물었지만
 그냥 눈물이 났다.
 부모님과 네 명의 시동생 그리고 두 아들
 열 식구가 한 집에
 13년 지났을 때 시동생들은 모두 장가를 갔다.
 30년이 지났을 땐 두 아들도 장가를 갔네.
 부모님과 45년을 함께 하였네
 결혼생활 25년이 지났을 때 나는
 어렵고 두려웠던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다.
 부모님 모시고 내가 제일, 고생하며 살았노라
 생각하였는데, 오늘 이 글을 쓰면서
 아 착각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 고생 많이 하신 분은 어머니이셨구나
 지금 이 시간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가여운 우리 어머니. 더 잘 챙겨드리지
 못하였음이 정말 죄송합니다
 언제나 내 편이셨던 부모님 사랑합니다.
 지금 내 삶이 화양연화가 될 수 있는 것도
 부모님 덕분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원동의 하루를 담다

발 행 월 2025년 11월

발 행 처 양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 | 055-382-9196

홈페이지 <http://ysrrc.or.kr/>

편 집 처 이안커뮤니케이션(주) | 055-264-4627

I S B N 979-11-987980-5-3